

## 미국—9·11 테러와 뉴욕의 전력사정

### 1. 10만kW의 전력수요 감소

작년 여름에 경기의 상승으로 더 많은 컴퓨터와 에어컨디셔너를 들여놓게 됨으로써 그동안 현지 전력공급이 한계에 부딪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전력위기에 직면하였던 뉴욕시(市)는 이제 최소한도 내년 중반까지 그리고 아마도 그 후까지도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갖게 되었다고 전력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급격한 사태의 전환은 부분적으로 9·11 테러리스트 공격의 결과로서 그동안 하루에 약 10만kW의 전력수요—거의 10만 가구에 공급하는데 충분한—를 과시하던 로어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무너지고 회사들과 입주자들이 흩어지게 됨으로써 전력위기의 요인이 제거된 것이다.

### 2. 전력위기를 넘긴 뉴욕시

그 때 이후 몇만 명의 직업을 잃게 만든 경기후퇴는, 조명을 밝히고 난방을 하여야 하는 시무실이 보다 적어졌음을 의미하며 또한 경제활동에서 돈이 전자 장난감과 여러 가지 전기 기

구류에 적게 지출됨으로써 전력시스템의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게 되었다.

뉴욕시와 북부교외에 전력을 공급하는 컨솔리테이티드 에디슨 전력회사(Con Ed)는 금년 여름에는 10년 이상만에 처음으로 전력의 수요증가가 없는, 평탄한 수평선이 될 것으로 수요전망을 하고 있다.

### 3. 전력공급설비 프로젝트의 중단사태

그러나 전력수급의 공급 측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거대 에너지 교역회사인 엔론의 붕괴—그리고 이 나라의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공급과다의 전망—는 한때 발전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를 열망하였던 투자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몇몇 이코노미스트들은 뉴욕주에서 새로 건설할 것을 제의하였던 2200만kW의 거의 3분의 2가 계통연결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욕 주지사 선거 때의 이슈와 같이 에너지문제가 목록에서 제외된 정치로부터 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인기 있는 과제를 가진 환경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열기

가 식었으며, 이와 같은 여건의 변화는 갑자기 일어났다.

“나는 존재하였던 위기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들 뒤에서 우리들을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페이스 로스쿨 에너지프로젝트의 증권 임원인 프레드 질러크먼 씨는 말하고 있다.

### 4. 2003년에 수요성장 기대

질러크먼씨와 다른 전문가들은 1년—특히 2001년 하반기와 같은 도를 지나친 무질서한 변화와 대변혁을 수반하는 경우일지라도—그 자체로서는 새로운 동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Con Ed의 수요예측 부서는 맨해튼 다운타운(상업지역)이 다시 건설되고 시(市)의 경제가 호전되어 2003년에는 다시 수요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내 전력공급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천연가스도 또한—언제나 마찬가지로—세계의 정치와 전쟁으로 인한 가격변동의 대상인 것이다. 겨울은 또한 유별나게 따뜻하여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게 되며 이와 같이 가격을 인위적

으로 낮게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 인사들, 환경주의자들 그리고 대규모 에너지소비자들 간에는 작년엔 전력시스템에 투자를 집중하게 하는 절박한 모멘텀(역세)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으나—많은 돈이 웰스트리트로부터 발전소건설로 흘러들어 갔으며, 수요성장이 공급력을 앞지르게 되어 뉴욕경제에 주름이 지게 되거나 않을까 크게 우려하였다— 이제 이것은 크게 약화되었다.

### 5. 8만kW 이야기

새로운 리듬의 가장 분명한 사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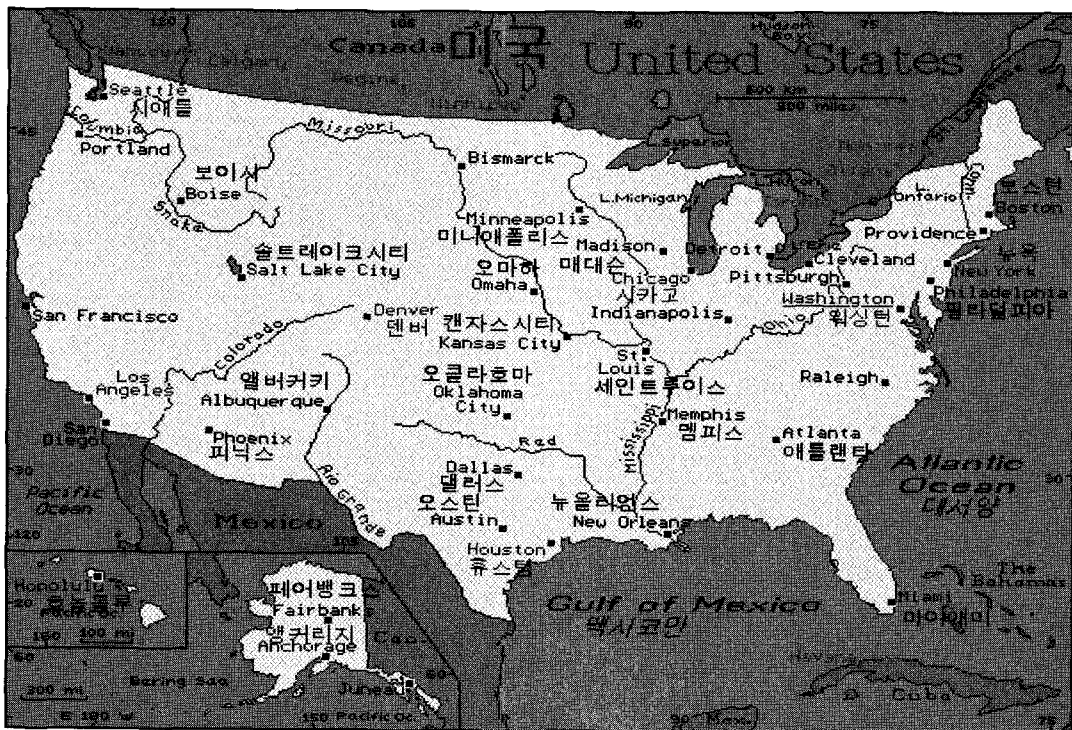
하나는 “8만kW의 이야기”라고 불러지는 것일 것이다. 그것은 세계무역센터가 한여름과 같은 첨두수요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이 얼마나 할당되었느냐는 것이다. 9·11 테러공격 이후에 뉴욕주 정부는 주(州)운영의 뉴욕 파워 오소리티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8만kW의 잉여 풀을 재해로 이전한 회사들에게 다시 분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거의 5개월이 경과하였으나 1와트도 할당하지 못하였다. 파워 오소리티의 대변인은 전력 풀에 대한 자격이 있는 회사들을 찾아내고 확인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어서 노력을 경주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의 간부사원들은 보다 큰 문제는 현재 Con Ed의 전기요금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전기사용자들이 공급선을 전환하는데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고 말하고 있다.

### 6. 발전소 건설수요의 급격한 하락

“당신은 8만kW를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것이다—그것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부루클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들에 대한 컨설



팅회사인 에너지 스펙트럼 인코퍼레이션의 데이비드 네이버그 사장은 말한다. “그들은 ‘자 이제 우리들은 여러분의 설비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에 설비용량문제는 이제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불안은 사라진 것이다.” 라고 덧붙여 말한다.

전국적으로 발전소 건설에 대한 욕구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매그로힐 컴퍼니즈의 에너지산업 조사담당 부서인 플래츠(platts)/RDI에 의하면 과거 몇 년 동안에 전국에 걸쳐 세워진 발전소들의 약 50%는 아마도 건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서부, 동남부, 뉴잉글랜드 및 텍사스에서는—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설비용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것이 뉴욕에서 만곡이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플래츠/RDI의 선임 컨설턴트인 윌 데일리씨는 말하고 있다.

## 7. 새로운 절전 프로그램

다른 산업계의 전문가들은 에너지 문제의 소강상태는 그 자체로서 큰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현재 수요 압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에서부터 대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소수의 사람들은 조지 E. 파타키 주지사는 재선에 도전

하려면 높은 전기요금 청구서 또는 브라운아웃(주파수나 전압이 낮아지는 사태)에 대한 투표자들의 노여움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피크기간에 전력수요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지난 해에 주(州)에서 만든 여러 가지의 새로운 절약프로그램들—전력요금에 추가되어 징수되는 부과금으로 조성되는 연간 1억 5천만 달러의 공동기금에서 자금이 공급되는—또한 에너지 가격이 낮을 때 보다 효율적인 에어컨디셔너에 대한 투자금 회수기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신청이 줄어들어 그 판매가 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 8. 절전자금의 용도

맨해튼에 있는 상업 부동산회사인 맥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의 재산관리 담당임원인 빈센트 크로체씨는 작년 주(州)로부터 절전자금을 받아 두 개의 미드타운 사옥에 자체 발전기를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력부족문제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금전면(面)만을 고려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크로체씨는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작은 수익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나? 우리는 전력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 9. 절전자금 신청의 감소

절전자금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주(州)에너지연구·개발청의 대변인은 경제적 배려가 잠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자금신청 등록이 9·11 이후 감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감소 원인을 보다 낮은 가격의 충격보다는 개발청의 여름철에 피크를 이루는 홍보 사이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른 산업계의 전문가들은 소강상태를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 10. 디젤발전기 가동허용요건의 강화

예를 들면 주(州)환경보존청은 작년 디젤발전기—가장 오염이 심한 에너지생산 방식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를 가지고 있는 수천 명의 소유주들에게 단시간 동안 기계를 가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를 공포하였다. 금년에 당국은 조례를 강화하여 발전기 소유주들이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월 주(州)규제당국은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Con Ed의 발전소 확장

으로 인한 잠재적인 오염에 대하여 공청회를 더 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뉴욕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몇몇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또한 이와 같은 추세 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뉴저지에 있는 발전소로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 전력을 공급할 새로운 송전선로에 대한 2개의 큰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산업계 분석가들은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더 제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갑자기 전력을 들여오는데 더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더 빨리 피칭(투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1. 에너지 마켓 리서치회사: ESAI

“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이 6개월 전보다 이제 더욱 어려워졌다.”라고 매사추세츠의 웨이크필드의 에너지마켓 리서치회사인 ESAI의 가스 및 전력 서비스담당 임원인 에드워드 크라펠씨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보다 송전선로 프로젝트는 보다 충격이 적다. 왜냐 하면 만일 당신이 송전선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당신은 다양화를 오퍼하게 되는 것이며,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더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주(州)는 1999년에 첫번째로 그의

전통적인 감시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의 필요와 요구 그리고 주민들의 욕망과 안전에 대한 관심사에 대해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는 계속되는 문제로 남아 있다.

### 12. 시(市) 전력시스템에 추가된 40만kW

몇몇 전문가들은 2002년의 소강상태는 시장이 이겼다는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뉴욕의 전력은 이제 월스트리트의 붐과 쇠퇴 사이클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정부가 그의 가치를 증명하였다고 말한다. 작년 여름에 시(市) 전력 시스템에 추가된 40만kW—10개의 가옥 크기의 발전기들이 뉴욕주변에 뉴욕 파워 오소리티에 의해서 건설되었으며, 어떤 때는 소송에 직면하기도 하고 편견의 주장에 시달리기도 하였다—는 금년 여름에 공급력 쿠션(여력)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정부주도의 효율화 프로그램은 시스템의 가장 심각한 수요 서지(쇄도)의 예봉(銳鋒)을 제거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강상태의 가장 큰 후속적인 결과는 발전소 건설의 이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뉴욕에서는 발전소를 건설할 때 주로 위치선정과 환경승인을 위한 모임 등에 장기

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적은 수의 건설 제의들은 자금을 얻는데 충분할 만큼 충분히 멀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플래츠/RDI의 데일리씨는 말한다. 그는 주(州)의 이들 제안된 프로젝트들 중에서 약 60퍼센트가 오도 가도 못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13. 주(州)공공서비스 위원회

주(州)공공서비스 위원회의 여자 위원장인 마우린 O. 헬머씨는 아직까지 발전소 개발사업자들이 철수하고 있다는 신호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보다 많은 주간(州間) 송전선로 프로젝트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경향이 1년 전에 보여준 것보다 지역 에너지믹스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침체상황이 시(市) 경계를 무너뜨리는데 모멘트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 14. 참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

“전력수요에 관련된 이와 같은 숨겨진 틈은 뉴욕의 장래를 위한 우리들의 결정에 이익이 되는 어떤 참신한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올

버니에 본부를 두고 있는 로비 및 환경보존 그룹인 인바이어런먼털 에드 보케이츠의 공기 및 에너지 프로그램

담당임원인 앤 레이놀즈씨는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지금부터 2년 후의 빠르고 더러운 결정을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자료: 「뉴욕타임스」, 2002. 2. 5.)

## 전력산업의 규제완화와 엔론 사태의 교훈

### 1. 규제완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엔론 붕괴의 여파로 규제완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혼란은 보다 자유로운 시장의 잘못이 아니라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이 나쁘기 때문이었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엔론 사태는 3개의 별개 분야에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가 파이낸셜 스탠더드(규범)이다.

엔론은 야단법석에도 불구하고 회사의외부에서는 아무도 엔론의 계임을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속일 수가 있었다. 도처에서 파이낸셜의 보다 높은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저항을 받고 있다. 효율 달성을 위하여 시장기능에 보다 더 의존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투명한 보고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규제가 완화된

환경은 사기와 협잡의 투기장으로 너무 부추기게 된다. 규제기관들과 그들의 대리인들만이 기업체로 하여금 잠재적인 난처한 정보를 토해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엔론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에 관해서 엔론의 붕괴는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포물러(방식)를 가진 파이낸싱의 천재들이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였다) 규제당국의 시계(視界) 밖에서 운용하였으며 투자자들과 은행들을 그들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이다.

### 2. 그러나 필요한 규제의 대상

이와 같은 사태는 또한 전력산업 초기의 비참한 시대를 연상하게 만든다. 즉 1920년대의 전력회사의 지주(持株)회사의 환상이다. 이들 모(母)회사들은 현지 전력회사들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엔론과 마찬가지로

규제 효력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영향을 미쳤다. 이것들은 아무 것도 아닌, 단지 옛날에 유행한 피라미딩(주식거래에서 투기 거래의 일종으로서 지주의 가격이 올라있을 경우, 그 가격 상승분을 주식증거금(margin)에 충당하여 지주를 늘리는 것)의 복잡한 변형으로서 주식을 몰타기와 투자자들로부터 호되게 돈을 뜯어내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변질시켰다. 피라미드가 붕괴하여 세계대공황을 유발하게 되었을 때 의회는 증권회사와 전력회사 모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를 명하였다.

두번째 재규제를 불러들인 분야는 전력이다.

캘리포니아의 최근 전력 대재난이 증명하듯이 전기의 수요는 비교적 탄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비발전설비 용량은 피크 기간을 위해서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규제된 전력은 적절한 공급과 공정한 가격이 공존하였다. 왜냐 하면 시스템이 피크수요를 위한



용량 확보를 의무화하고 가격조작에 의한 폭리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기업가들에게 예비용량을 없애고(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조작을 가져오게 하는 시장의 지배력과 같은 방법을 축적도록 하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 3. 공급조작과 최상의 이유

이와 같은 기업환경은 엔론과 같은 탐욕스러운 기업체들에게는 공급조작에 의한 최상의 이유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1920년대에서와 꼭 마찬가지로—아무 규제기관도 엔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조차도 경제의 어떤 주요부문은 규제를 필요로 한다. 분명히 전기도 그들 중의 하나이다. 원칙적으로 전기규제의 효율적인 제도는 규제된 경쟁 위에 교역시장은 유지하지만 규칙은 엄격하게 하고 악용을 엄하게 단속함으로써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의 통찰력은 장래의 엔론을 바르게 길들이는데 필요하며 그들을 정직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철인왕(哲人王)의 현명함과 부패하지 않는 청렴함이다. 경쟁의 후원자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늦게나

마 가격상한 명령을 발하였고 원인규명에 나섰으며 시장기능 치유에 나섰 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한정적인 경쟁을 최소한도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좋은 출발이었다.

### 4. 캘리포니아의 전력 재난

그러나 이것은 따라잡기의 게임이다. 전력을 직접 보다 더 잘 규제하기 위하여는 가격과 공급과 발전을 공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전력재난에서 면제된 하나의 안정적인 오아시스가 로스앤젤레스의 공공전력 공급지역이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발전소들은 지방자치체 소유이며, 따라서 이익을 만들어 낼 조건이 아닌 것이다.—따라서 공급과 가격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책임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규제의 마지막 실패는 연금(年金) 시스템에 관련된 것이다.

엔론의 종업원들은 그들의 세금 보조된 막대한 퇴직적금을 엔론 주식에 투입하도록 강요받았다. 주식이격이 붕괴되었을 때 그들의 퇴직금 꿈도 붕괴되었다. 다양화가 신중한 투자의 첫 번째 규칙이다. 한 회사가 그들의 종업원들에게 그들의 퇴직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넣도록 강요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처사이며, 이것은 물론 불법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 5. 규제완화를 위한 규칙도 정치적

규제완화의 이론가들은 정부의 간섭은 정치에 의해서 부패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비효율적이며, 다른 한편으로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깨끗하게 책임 있는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선천적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장들은 규칙들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위한 규칙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엔론의 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규제절차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는 것이다.

엔론은 궁극적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사였다. 이 회사의 케네스 L. 레이 회장은 부시 가족과 친분이 있었으며, 또한 민주당원들과도 연계되어 있었다. 엔론의 경영자들은 무자비하게 주(州) 입법부에 대하여 그의 시장조작을 추구하는데 엄격하지 않은 환경이 되도록 로비활동을 하였다. 이 회사는 자료요구에 대하여 저항하였다. 누가 정보를 뽑아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공화당의 새 전국위원회 의장인 마크 라시코 씨가 그들을 위한—그들이 누구인지 알 것이다—로비스트이었다는 것이 상징적인 일이다.

(자료: 「비즈니스위크」,

2001. 12. 24.)